몽골서 전북 알리기 전방위 홍보전

수도 울란바토르서 공공외교 한마당 개최… 한국문화 체험 · 유학생 유치 설명회 · 노밍 백화점서 농산물 판촉 등 진행

전북도는 기회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열고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며 본격적인 실질적 교류 협력의 초석을 쌓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주간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대표단은 첫날인 지난 25일 한국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 도립국악원과 국립남원민속국악단 방수미 명창의 판소리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북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돌고르수렌 소비야바자르 울란바토르 시장을 비롯해 몽골 중앙부처 관계자, 주몽골주재 각국 외교관 등 약 1만여명이 참석해 한국문화주간을 만끽했다.

도는 25일부터 3일동안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서예관), 전북홍보관, 도내 대학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지우산, 한지등, 부채 등 한지 공예작품부터 손수건, 지갑, 한복 등 섬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작품을 전시했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지공예 체험도 진행했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 도내 업체 7개사가 참가 하는 가공식품을 전시, 시식했다. 개막식에서는 비빔밥 퍼포먼스도 진행했으며 전북산 전통고추장을 홍보했다.

한글관에서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 서예관으로 꾸몄고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퍼포먼스, 탁본체험 등으로 구성해 몽골 서예와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장을 마련했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했다.

전북홍보관과 함께 도내 대학 홍보관도 함께 운영,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6일에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라북도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어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1:1 상담도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번 한식관 운영과 연계해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 시식행사를 진행,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이번 행사가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또 "특히 이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북도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간의 미래 가치산업에 대한 경제협력 추진도 필요하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27일 재외동포 간담과 몽골 사막화 방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재훈 기자

"예산확보 위해 끝까지 최선"

김관영 도지사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 등 대응 철저히" 강조

"을지연습 마무리 · 비상 대비 훈련은 실전처럼 연습" 당부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4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제 정부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으로, 국회 단계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잼버리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실국장이 국회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 내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자."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전북과 새만금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24일 실시한 을지훈련에 대해 언급하며, "전시와 비상상황을 대비한 훈련은 실전처럼 연습하는 한편, 보완하고 숙달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휴식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중국이 지난 10일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석도국제훼리가 운항을 재개했다며, 중국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전북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 · 쌀산업 육성 위해 특별분과 한시적 운영 협의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민·관·학·연 거버넌스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민·관·학·연 거버넌스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번째로 개최되는 전체 회의다.

도는 그 동안 7개 분과별 회의와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현안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각 분과에서 의견을 모은 시책들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창득(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민간위원장을 비롯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7개 분과대표위원, 10여개의 농민단체 대표, 유관기관 위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필수 농자재 가격상승 대응과 전북 쌀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분과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각 분과별로 총 24건의 신규시책 제안과 국가에서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전북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제안된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초저온 급속냉동시설 구축, 청년 농식품운영 사업가 육성,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 스마트 정밀농업 확산 등이며 세부사업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 개소식

아토피 · 천식 분야 공공의료기관 전문성 · 역할 강화 기대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질병관리청, 도·시군, 도의회, 교육청, 병원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여는 교육정보센터는 금년 2월 신규 지역 설치를 위한 질병관리청 공모에 선정되어 6월에 전북대학교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내에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구성된다.

교육정보센터는 김소리 센터장을 비롯한 전담인력 6명이 △전북지역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등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연구정책 과제 수립 수행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인증사업 △지역사회 보건인력 및 의료인에 대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교육 △알레르기질환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전문인력(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및 타지역 센터의 인적 네크워크를 연계해 알레르기질환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내·외 동원가능한 자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및 인증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제공하여 적절한 예방 치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특사경, 공유주방 운영 · 사용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내달 8일까지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시 30~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앱 이용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시차별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에 대한 배달음식점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소 및 공유주방 사용 배달위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론과 면접(교양과목) 담당 교수 역임
• 한국스피치·웅변연합회 전북회장 • 전주매일신문사 국사장
• 전북인재개발원 및 기관 단체 등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서동숭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